

보도자료



보도 희망일	제한없음(즉시)
문의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snupr2@snu.ac.kr

배포일: 2022. 3. 2.(수)

서울대, 2022년 입학식 온라인으로 개최

□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2022학년도 입학식을 3월 2일(화) 오전 10시 서울대 대표홈페이지(www.snu.ac.kr)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개최한다.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은 학사과정 3,613명, 석사과정 2,814명, 박사과정 785명으로 총 7,212명이다. 서울대 온라인 입학식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신입생들이 참여한 입학소감과 교가 제창 그리고 재학생·교수·직원들의 릴레이 환영인사 등을 마련했다.

□ 오세정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대학생활에 있어 자기주도적 배움 즐기기과 끊임없이 질문하기, 사고와 제도의 경계 넘기, 함께 성장하기 등을 강조하였다. <첨부1: 입학식사> 축사 연사로 초청된 교육스타트업 에누마 이수인 대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마음을 기를 것을 강조했다. <첨부2: 축사>

□ 주요 식순

- 릴레이 환영인사, 입학식사(총장), 학사보고, 축사(이수인 에누마 대표), 제창, 교가제창(신입생), 신입생 입학소감 등

※ 붙임: 입학식사(총장), 축사(이수인 대표)

【첨부1: 입학식사】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햇수로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인사를 나누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대면 입학식 행사를 치르지 못하는 것이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입학식을 거행해왔던 체육관에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입학생과 학부모님들로 가득 차어야 할 체육관이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만, 이곳을 포함하여 캠퍼스 곳곳에서 여러분을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지, 선생님들께도 축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대학 입시까지 치르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서울대에 입학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이야기보다는 먼저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입학식은 새 학기를 여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우리 대학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방역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년의 비대면 수업을 통해 우리는 대학 내의 여러 공간에서 동급생, 선후배, 조교, 교수,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과 마주치고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입학한 학생들도 사실상 처음 본격적인 대면 수업 학기를 맞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캠퍼스는 1, 2, 3학년, 세 학년의 학생들을 동시에 새롭게 맞이하는 셈이고, 오늘 입학하는 여러분은 세 배의 동기생이 생기는 셈입니다. 봄의 캠퍼스에 싱그러움과 활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대학 생활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학생으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서울대의 생활을 위한 조언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을 즐기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학점 잘 받으라는 주문이 아닙니다. 대학 생활을 통해 지식뿐 아니라 태도, 관점, 그리고 취향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대를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기르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가치관을 세우고, 창창한 인생을 밀고 나갈 힘이 될 지적, 감성적, 문화적 자양분을 축적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학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학을 하면서 선택한 전공만이 아니라 복수전공, 부전공, 자기설계전공제 등을 통해 자신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확장시키고 싶은 분야의 지식에 접근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둘째, 끊임없이 질문하기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을 의심하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각도로 세상을 관찰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 말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때로는 발칙한 상상도 해보고 무모한 도전도 해보기 바랍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은 분명 축복이고, 입시라는 좁은 문을 통과한 것도 칭찬받을 일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를 잘 푸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질문을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 그 해답을 찾다 보면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셋째, 경계를 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문과와 이과 사이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문필가인 찰스 스노는 1959년 케임브리지대 강연에서 문과와 이과를 도저히 섞이지 않는 ‘두 문화’라고 지칭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두 문화’의 간극이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아니 변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전공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융합주제강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율연구를 통해 학부생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 자신만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와 제도의 경계를 허무는 첫걸음을 이곳 서울대에서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넷째, 함께 성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서울대인이 되었습니다. 앞만 보고 나가지 말고 주위를 살피고 뒤를 돌아보면서 함께 손잡고 전진하기 바랍니다. 인류 공통의 선한 가치들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며, 승자의 환호보다 패자의 눈물을 보살피는 가슴 따뜻한 서울대인이 되기 바랍니다. 서울대인은 능력주의의 옹호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경쟁의 무기나 승리의 자격이 아닌, 공동체와 공유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여기기 바랍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용하고 나눌수록 증폭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양극화 뿐 아니라 이념과 진영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여러분은 폭넓은 시야와 유연한 생각으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학번 학생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배우고, 질문하고, 경계를 넘고,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학에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2022년 3월 2일

서울대학교 총장 오 세 정

【첨부2: 축사-이수인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스타트업 에누마의 창업자 이수인입니다. 이런 빛나는 자리에 함께 할 기회를 주신 총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창업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미국에서 회사를 세운 이후, 학습이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성공을 말하기에는 한참 이르고 천천히 성장하는 스타트업입니다만, 전세계의 기초교육을 개선하겠다는 큰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좋게 여겨주셨기에 불러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입학한 여러분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원대한 목표를 발견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배우기를 기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학생활을 통해 꼭 얻어야 할 것으로,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은 2019년에, 5년동안 진행된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라는 세계대회에 참가해서 우승했습니다. 엑스프라이즈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꼭 풀어야 하는 어려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상금을 거는 대회입니다. 저희가 도전한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는 개발도상국의 문맹의 아이들이 어른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읽고 쓰고 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과제에 170억원이라는 높은 상금이 걸렸던 것은 지난 몇십년간에 걸쳐 진행했던 모든 방법이 실패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아무리 보상이 멋져보이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지만, 기존의 레퍼런스들을 찾을 수 없고 저희도 실패할 지도 모르는 일에 뛰어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해답을 찾는 것보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대회를 무사히 끝내고, 공동우승 상금을 받고, 여기서 발전된 기술로 계속 사업을 하는 지금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따라가게 해줬으면 좋겠고 길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떤 업적도, 인생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남의 뒤를 그저 열심히 따르는 길을 가고자 하면 멋진 결과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계속 도전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을 받아들이다보면, 어느새 남들이 하지 않은 분야에서 제일 앞 줄을 걷고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앞에 무엇이 있을지, 내일 무슨 도전을 하게 될지, 내년에 어떤 새로운 분야가 존재하게 될 지 전혀 알 수 없겠지만, 두려움없이 도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어떤 분야를 새로 만나든지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 벨리의 VC 들이 창업자에게 던지는 유명한 질문 중에 “세상 사람은 다 모르는데

당신만 알고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저에게는 이 질문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어요. 도전을 피하지 않고 정신없이 이를 해결하다보니 어느새 언젠가 어느새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대답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 질문의 대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찾기 쉽지 않을겁니다. 먼저 남들이 여태까지 발견해온 것과 아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떤 일을 할지 진로를 결정해야겠지요. 하지만 분야를 선택하거나 진로를 결정할때 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능성에 도전하고, 그 뒤로도 큰 보상이 있는 평범하지 않은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언젠가 저 질문을 받았을 때에 멋진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밝혀낼 비밀과 그 도전이 만들어낼 미래를 즐겁게 상상하고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대학에 입학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실패하는 두려움에 익숙해지세요. 도전 가득한 멋진 대학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